

#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3월 첫 번째 28권 5호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Mass Casualty 훈련  
카투사신문 온라인

###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 4,5면 부대 탐방

501정보여단3정보대대



### 6면 자유 공간

이현규의 축구이야기

###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 8면 안녕하세요

한가인



###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예배



카투사 신문 강병삼

미 8군 사령관 캠벨 중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추모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5일 용산 사우스포스트 채플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있었다. 이날 추모예배는 미 8군 사령관 Charles C. Campbell 중장이 제안하여 Area II 군중감 Mark E. Fentress 대령이 기획하였다. 추모예배에는 Campbell 중장 외에도 다수의 카투사와 미군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성경을 읽었으며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Fentress 대령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라고 기도하였다.

34지원단장 Steve T. Wilberger 대령은 "추모예배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8의무사 121병원의 박기태 이병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미군들이 추모 행사를 갖는 것이 고맙고, 최근의 반미감정 등과 연관지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참석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하였다.

행사 진행을 도운 사우스포스트 채플 군중병 오성재 상병은 "남겨진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되새기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다짐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성금을 보내고 싶은 카투사 혹은 미군들은 Area II 공보실, 738-7354로 연락하면 된다.

일병 강병삼

## 주한미군, 한국 헌혈 운동 동참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 일각에서는 두 나라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같이 인간이라는 하나의 띠로 묶인 존재이고 피는 그냥 다 같은 피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역에서 68명의 주한미군이 헌혈 운동에 참가한 행사를 두고 미군 위문 협회 기획부장 Jerry Brenot 씨는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헌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이번 행사의 주치의인 이미경씨가 말했다. "이런 대대적인 헌혈행사는 피가 모자랄 때마다 열리는데, 미군들이 피를 나누어주러 왔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사람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그는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해 준 주한미군 작전 참모부 Joseph Terry 주임원사는 이런 행사 참여가 한국 국민을 향한 그들 군인들의 관심을 표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해 또,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우리들 친구와



Eighth Army PAO 윤종필

주한미군 작전 참모부 항공대대 Shaheed Salaam 병장이 헌혈하는 모습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 평균 4-5건의 행사를 기획하는 Brenot 씨는 이 행사를, 군인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원래 요청한 인원은 20명이었는데 68명이 올 정도로 이런 행사에 대한 반응은 놀랍다고 말했다. "미군과 한국 국민을 연결해서 어떤 일을 기획하면, 놀랍게도

끝날 때 양쪽 모두 아주 만족하게 된다"고 그는 끝을 맺었다.

적십자사 박정규 선생은 "적십자사에서는 미군의 헌혈 동참에 감사하며 이는 한미 국민간의 진정한 우정을 과시하는 행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ighth Army PAO  
Sgt. Russell C. Bassett

# 2003년 상반기 매스칼 훈련

지난 2월 26일 18의무 사령부 121병원 중대원들은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위치한 킬리어 필드 하우스에서 매스칼(Mascal: Mass Casualty) 훈련을 가졌다.

매스칼 훈련이란 전쟁 발발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 사상자들을 분류, 응급치료하는 훈련이다. 121병원 중대원들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번씩 이 매스칼 훈련을 가져 전시기 그들의 대처능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을 총지휘한 121병원 중대의 William White 소령은 "이러한 훈련



카투사 신문 장승모

환자 역할을 하기 위해 Camp Humphreys에서 헬기를 타고 온 한국 근무단 근로자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수송하고 있는 121 병원 중대원들

을 통해서 우리는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이번 훈련의 최종목표"라고 훈련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카투사를 포함한 총 50명의 121병원 중대원들이 참가했고 121병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소수의 한국군 소속의 의무 장교들도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50여명의 카투사들이 환자 역할을 맡기 위해 헬기를 타고 올 예정이었으나 악천후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번 훈련은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환자를 실은 헬기가 악천후로 인해 캠프 험프리스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후 1시에야 121병원 중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의무병과 환자로 나뉘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에서 121병원 중대원들은 환자의 증상을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이들을 분류, 응급치료 하였다. 환자의 접수부터 증상 분류, 응급치료하는 과정 내

내 긴장감이 감돌았고, 훈련 참가자들은 실전과 같이 진지하게 움직였다. 오후 3시가 되어 날씨가 풀리자 평택에서 환자 역할을 맡은 9명의 한국근무단 근로자들이 헬기를 타고 도착했고, 121병원 중대원들은 헬기장에서부터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킬리어 필드 하우스까지 이들을 신속하게 수송, 응급치료하였다.

훈련은 오후 4시 마지막 환자를 응급치료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121병원 중대 중환자실 소속의 김은주 대위는 "한국군의 전시기 의료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러한 한미연합훈련들을 통해 한국군의 의료 시스템도 발전할 것 같다"고 이번 훈련이 갖는 의미를 말했다.

121병원 중대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임종일 상병은 "오전에 환자들이 오지 않아 훈련이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훈련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일병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

121 병원 중대의 Cheryl L. Brooks 대위와 Jason J. Naputi 병장이 환자 역할을 맡고 있는 임종일 상병의 증상을 체크하고 있다.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판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간 미군 인쇄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서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 안등보
- 편집장
- 상병 김대동
- 기자
- 병장 이만석
- 일병 강병삼
- 일병 장승모
- 일병 윤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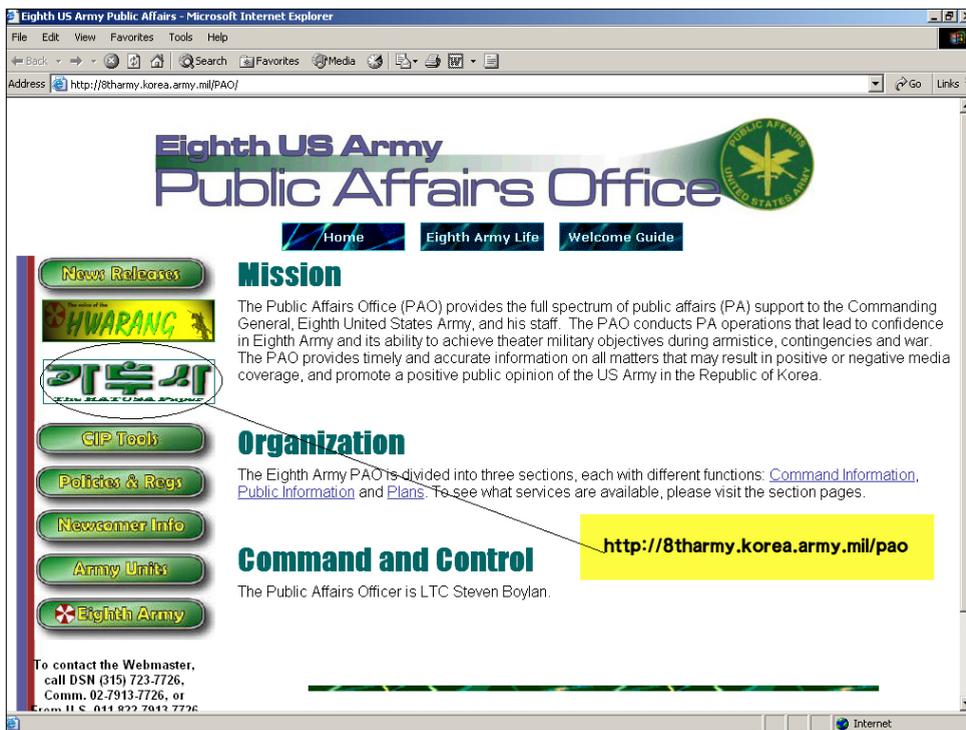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G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C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MAJ Lee M. Packnett
- Editor
- CPL Kim, Dae Dong
- Staff Writers
- SGT Lee, Man Suk
- PFC Kang, Byung Sam
- PFC Jang, Seung Mo
- PVT Yoon, Jong Pil
- Special Assistant
-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 카투사 신문 ON-LINE 서비스

카투사 신문이 온라인 서비스를 재개하였습니다. 카투사 신문 타블로이드판은 격주간 3,500부가 전국 각지로 발행되고 있으나 캠프 사정상, 또 작전 등으로 야전에 나가 신문을 읽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 카투사 신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신문을 다시 한번 돌아 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카투사 신문 온라인 주소는 <http://8tharmy.korea.army.mil/PAO/katusa.htm> 입니다. 아직 미비한 점이 많으나 필요한 곳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http://8tharmy.korea.army.mil/pao>

###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문 제작진의 RSO&I 참가료 3월 둘째 호는 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이탈리아의 특수부대

◆ Commando Raggruppamento Subacqui ed Incurisori (COMSUBIN)

해군 공격부대의 개척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온 이탈리아는 세계 1, 2 차대전을 거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냈다.

오늘날의 공격부대는 Commando Raggruppamento Subacqui ed Incurisori 라는 긴 이름으로 불리나 COMSUBI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0 여명의 철인같은 해군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대는 습격팀과 잠수팀의 두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다.



제공사진

수중 훈련에 임하고 있는 한 이탈리아 특수 요원

주 임무는 기뢰, 폭발물, 수중 장애물 제거, 아촉이나 적측 해상/수중 정찰, 상륙작전을 위한 해안 교두보 확보, 적 해군 시설에 대한 기습공격 등이다.

전 요원이 자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산 마르코에 위치한 이탈리아 해병대 요원들이다.

COMSUBIN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10 개월 동안 레인저, 낙하, 폭파 및 각종 무기조작법 등에 대해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예중의 정예인 Raiders 그룹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42주의 추가 교육을 필해야 한다.

프랑스의 특수부대

◆ Detachement d'Intervention Operationnelle Subaquatique (DINOPS)

DINOPS 는 공수훈련을 마친 잠수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중침투 및 폭파를 전문으로 한다. 프랑스 외인부대의 제 6 공병연대 정찰지원중대 소속인 DINOPS 는 수중 폭파, 해안정찰, 와해공작, 도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부대원들은 모두 엄격한 훈련을 거친 지원자들



제공사진

다이빙 장비를 모두 걸치고 실전에 투입된 프랑스의 특수부대 요원들

중에서 선발되며 프랑스 해군의 전투수영코스와 육군의 공수훈련을 마쳐야 한다. 또한 외인부대내의 교육과정과 육군 기술훈련학교의 특수교육과정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훈련시에는 폐쇄회로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며 폭발물 설치 및 해체와 수중작업교육을 받는다.

DINOPS 요원들은 항공기, 잠수함, 함정, 고무보트, 2인승 카약 등을 이용하여 침투하며 때로는 해안까지 해엄쳐 침투하기도 한다.

걸프전당시에는 美 육군 82 공수사단을 지원하여 폭발물 설치를 도왔으며 종전후에는 호주 해군의 기뢰제거팀과 공동으로 걸프만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

기도 했다.

DINOPS 요원들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FAMAS 공격용 소총, HK MP-5 계열의 경기관총, 베레타 9 mm 권총 등을 주로 사용하며 임무에 따라 다양한 폭파장비를 사용한다.

수송수단으로는 조디악(Zodiac) 고무보트와 클레퍼(Klepper) 2인승 카약을 사용하며 야간작전을 위한 야시경도 휴대하고 있다. 또한 수중작전을 위해 웨트 슈트(wet suit)와 스쿠버장비 및 폐쇄회로형 산소호흡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가장 기억에 남는 동기



3정보대대 본부중대 병장 박정우

논산과 KTA에서 함께 생활한 이 동기는 논산 입소대대에서부터 보직을 받고 난 후 이곳 평택에까지 함께 온 친구라 내게는 소중한 친구이다. 항상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지금 병장으로서 부서를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놓인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제대 후에도 계속 우정을 쌓아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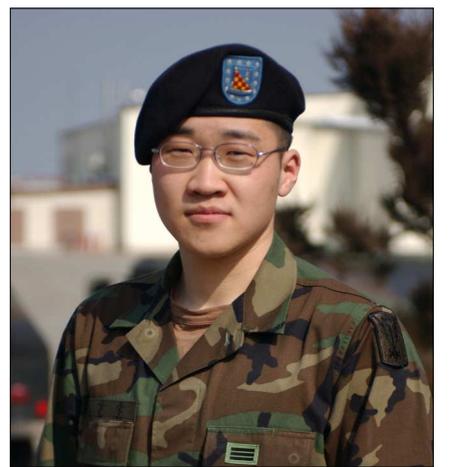
3정보대대 본부중대 일병 조순신

KTA에서 우리 3구대가 이동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한국군 고관께서 우리들에게 한국군 군가를 부르라고 하셨다. 그러자 우리 구대의 Platoon Guy였던 동기가 선택한 곡이 예술이었다. 다음 아님 '육군 훈련소가'였다. 그 많은 군가중에 하필 왜 그 곡을 택했을까. 이제 5월이면 상병으로 진급하는 동기들아! 앞으로 남은 일년동안 즐겁게 생활하자.



3정보대대 B중대 병장 이그림

난 논산 훈련소에서 몇 안되는 제철 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였다. 우리 소대에서 나이도 제일 많았다. 형이라고 다들 부르곤 했다. 친하게 지내던 동생 두 명이 있었다. 내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항상 과자와 음식을 조금씩 챙겨 가지고 와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졸이며 기다리던지..



3정보대대 A중대 상병 김상준

순간 머리속에 여러명의 동기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에서도 KTA 같은 분대였던 정규가 생각납니다. 경상도 특유의 입담과 재치의 소유자였던 정규를 통해 KTA에서 힘든 훈련 와중에도 많이 웃을수 있었고 그로인해 소중한 교육병 추억을 간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덧붙여, KTA 02-01기 "김경식! 진심으로 결혼 축하한다. 잘먹고 잘살어!"



용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본 기자가 닿은 곳은 예전의 KTA가 위치했던 곳,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이다. 캠프 험프리스에는 한국군 5648 공군부대와 501정보여단 소속의 3정보대대와 527 정보대대 등 여러 공군부대와 정보부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로 넓은 활주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수십 기의 비행기들이 바둑판의 돌들처럼 비행장에 놓여 있었다. 이들 부대 중에서 이번 부대 탐방의 주인공은 비행기를 이용하여 적군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501 정보여단 소속의 3정보대대이다.

3정보대대는 그 임무의 성격상 대다수의 부대들과는 달리 복잡한 연혁을 가지고 있다. 1964년 11월 미 보병 제 2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 2 비행 감시대로 소속되어 서울 여의도에서 작전을 개시했고, 1966년 6월에는 월남전에 참가해 RU-6과 RU-8기로 특별 전자임무를 수행하였다. 1970년 4월에는 서울 공군 기지로 이동, 비행 감시정보의 책임을 맡았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부대의 명칭이 제 6 비행소대로 개칭되고 제 17 비행중대로 소속되었다.

1971년 7월에는 704군사 정보 과전대로 개칭 및 501 정보여단으로 소속되었다. 같은 해 현 소재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했고 현재 사용중인 작전용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되었다. 1973년 2월 월남전의 종료로 146보안중대는 이듬해



제공사진



## 501 정보여단 3 정보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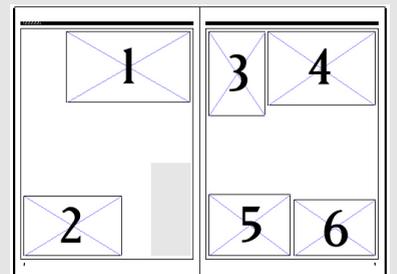
대구에서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 501 정보여단의 야전 정보대로 소속되었다. 1979년 12월에는 146보안중대와 704정보 과전대가 통합되어 146정보대대로 개칭되었고, 1982년 6월에 146정보대대가 비로소 현재 명칭인 3정보대대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부대의 잦은 이동과 개칭은 정보대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3정보대대는 영상 및 통신 정보 수집용 장비가 장착된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무장지대 북방의 북한군의 전자, 통신,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입수된 자료를 전략, 전술 지휘관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그 주임무로 하고 있다. 3정보대대에는 36명의 카투사를 포함해 총 340명의 대대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은 본부 중대, A 중대 그리고 B 중대 이렇게 3 중대로 나뉘어 있다. 본부중대에는 21명의 카투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A 중대에는 5명, B 중대에는 10명의 카투사들이 있다.

각 중대별로 그 임무를 살펴보면, 먼저 본부중대는 인사과, 보안과, 작전과, 공급과, 모터 풀 그리고 POL(Petroleum, Oil, Lubricant)로 이루어져 있다. POL에는 2명의 카투사 요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작전용 항공기에 주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A 중대에서는 항공 사진을 수신, 처리하는 영상정보과 외에 이들 기기를 유지하는 차량정비과, 전자정보과 그리고 항공사진과가 있는데 A 중대의 카투사들은 오더리 룸에서 2명, 트레이닝 룸에서 1명, 서플라이 룸에서 1명 그리고 NBC에서 1명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B 중대에는 통신정보과와 전자정보과가 있는데, B 중대의 특이한 점은 B 중대 소속의 4명의 카투사 음성정보병들이 Zoeckler Station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Zoeckler Station이란 501 정보여단 소속의 전문 정보 분석처로써, 501정보여단의 예하부대인 532정보대대, 524정보대대, 3정보대대, 527정보대대에서 보낸 감청병들이

Sergeant's time 시에는 주로 주특기 교육이나 중대별로 모여 NBC 훈련 또는 CTT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3정보대대는 비행장 경비 훈련(PDF: Perimeter Defence Force)이라는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이 훈련은 전시기 적군이 비행장으로 침입해 올 경우를 대비하는 훈련으로 3정보대대에서 50여명을 조직하여 비행장의 특정 구역을 수비한다.

3정보대대는 한 달에 한 번씩 응급구호(First Aid) 또는 테러진압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테러진압훈련은 테러 모의



1. 비행장 격납고 앞의 3정보대대원들
2. 3정보대대원들이 PDF(Perimeter Defence Force)훈련을 마치고 복귀하기 위해 시누크에 탑승하고 있다.
3. 훈련에 사용할 라디오를 정비하고 있는 A 중대의 공대원 이병
4. 3정보대대원들이 비행장 공터에서 PDF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은 안지욱 병장(가운데)과 Alfred H. Jean 상병
5. 훈련 기간에 NBC Team이 항공기 제독(Plane Decontamination)을 하고 있다.
6. 3정보대대 본부중대의 박정우 병장이 헤미의 사이드 탱크에 주유하고 있다.



제공사진



카투사 신문 장승모

자가 철조망을 넘어 부대 안으로 침입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들을 진압하는 훈련이다. 또 3 정보대대는 NBC 팀이라는 것을 구성하여 평소에는 일반 제독소대가 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훈련 시에는 이 외에도 생화학 공격을 받은 비행기를 가정하여 이 비행기를 제독하는 일을 맡고 있다.

3 정보대대 소속의 부대원들은 일년에 두 번 있는 여단 훈련과 RSO&I, UFL 그리고 Foal Eagle 등 총 5번의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들은 야전에 나가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정보대대 대대원들은 12시간동안 업무를 한다는 것 외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훈련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훈련을 부대 내에서 받는 데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작전용 항공기가 비행장을 벗어날 수 없고 또한 3 정보대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은 모든 설비가 갖추어진 부대 내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공사진

3 정보대대의 가장 큰 자랑으로는 카투사와 미군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정보대대 소속의 미군들은 대부분 많은 지식과 높은 수준의 정보분석능력을 요구하는 통신병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카투사들과 다양한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음성정보를 분석하는 미군 감청병들은 물론이고 3 정보대대의 대다수의 미군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부대 내에서의 한미우호활동 또한 왕성하다. 3 정보대대에서는 매달 미군들과 카투사들이 함께 한국의 여러 시설들을 견학한다고 한다. 주요 방문지로는 용산 전쟁기념관, 비무장지대, 민속촌, 인천상륙기념관, 청와대가 있다. 카투사들은 방문지에서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미군들과 더욱 가까워진다고 한다.

3 정보대대 본부중대 작전과 소속의 Gary Jordan 일병은 "다른 문화환경에서 자란 카투사들과 일하면서 이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각각의 카투사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우리 부대에게 있어서 매우 값진 재산이다"고 말했다.

3 정보대대의 카투사들은 중요한 군사 정보를 다루는 만큼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역시 크다고 한다. 군사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카투사들은 물론이고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의 경우에도 함께 일하는 미군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미군들이 카투사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따라서 카투사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 부대운용이 그 순간부터 마비되기 일췌이고, 때문에 이곳 카투사들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3 정보대대 선임병장 김경태 병장은 "부대에서 미군들이 카투사들에게 한국말로 말을 걸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할 때면 카투사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자랑스럽다"며 뿌듯함을 나타내었다.

"처음 전입 왔을 때는 주위 미군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 일을 잘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3 정보대대 A 중대 오더리 룸의 이중민 병장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익숙해짐에 따라 일을 잘할 수 있었

고, 전입 온지 얼마 되지 않는 미군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B 중대 트레이닝 룸에서 근무하는 전재환 일병은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취급하지는 않지만 3 정보대대는 많은 정보가 오고가는 곳인 만큼 간접적으로나마 정보를 듣고 북한과 우리 나라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3 정보대대에서 근무하는 소감을 밝혔다.

사방이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3 정보대대 카투사들. 본 기자는 3 정보대대를 취재하면서 이들의 업무 환경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구수한 흙내음이 바람을 타고 밀려왔고 창 밖에 펼쳐지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과 끝없이 이어지는 활주로는 마음을 한껏 여유롭게 해주었다. 부대의 환경 덕분인지 3 정보대대 카투사들은 매사에 자신감과 여유가 가득한 듯 보였다. 아무쪼록 3 정보대대, 아니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군복무에 임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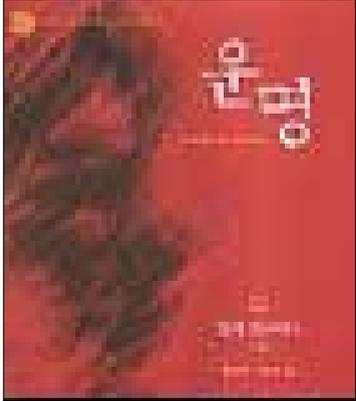
일병 장승모



제공사진



카투사 신문 장승모



BESTSELLER

운명

임레 케르테스 / 다른 우리

헝가리 작가 임레 케르테스의 대표작으로 원제는 '운명없음'을 뜻하는 헝가리어 'Sorstalansag'이다. 작가 자신의 아우슈비츠 체험이 담긴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15세 소년 죄르지의 시선을 통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자유가 있는 한 운명은 없다'라는 명제를 통해 우리 자신이 바로 운명임을 역설하고 있다.



WEBSITE

매직TV

www.tvmagic.co.kr

요사이 마술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즐기는 동호회와 마술을 배우는 아카데미, 사이트들도 속속 많이 생겨나고 있다. 매직TV는 바로 그런 사이트들 중의 하나이다. 이 사이트는 마술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마술에 사용되는 여러 용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돈 들이지 않고 마술도 배우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많은 사람도 만날 기회!

카투사 기고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

축구의 본고장

->English Premiere League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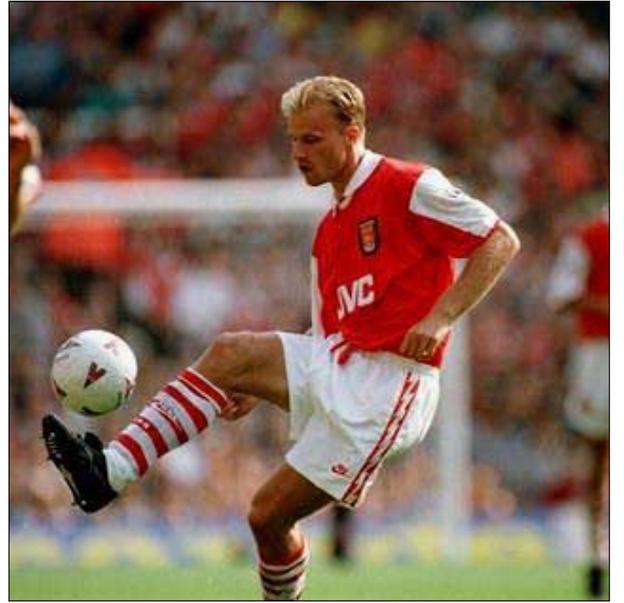
'잉글랜드' 하면 항상 '축구의 종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전쟁터에서 전사자의 머리를 차면서 놀았던 것이 축구로 발전하였다는 '축구 태동설'을 떠올리는 카투사들이 많겠지만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대 축구의 규정(ex 오프사이드)과 규칙이 잉글랜드에서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프리미어리그는 1992년 디비전 1의 자동 승격으로 탄생하였으며 잉글랜드 프로리그는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디비전 1,2,3 이렇게 4개의 리그로 이루어져 있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 20개의 팀

있는 선이 굵은 축구를 구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잉글랜드 축구의 특징을 비가 자주 내리는 섬나라 잉글랜드 기후의 영향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4-4-2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는 사람들이 즐거운 축구를 선보인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프리미어리그 참가팀 20개의 홈 구장은 모두 축구 전용구장이며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사이가 가까워 간혹 흥분을 참지 못한 일부 과격한 팬들이 손쉽게 그라운드에 진입, 웃지 못할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한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리버풀 서포터들의 난동으로 수십명이 사망한 헤이젤 참사와 자국 리그 내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관중 압사 사고등의 이유로 모든 프리미어리그 구장에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하도록 되어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유럽 명문클럽이다. 1998-1999 시즌 프리미어리그, FA 컵,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여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초대형 기록을 달성하였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절반이상을 독식하였



제공사진

피치 위의 아티스트 - 데니스 베르캄프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려 2인자에 머무르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지만 작년 리그 우승을 기점으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런던을 연고로 한 6개의 프리미어리그팀 가운데 가장 우승경력이 많은 팀이다. 북부 런던을 연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런던 북부지역 팀이자 최근 일본인 선수 토다를 영입한 토트넘 핫스퍼와 라이벌 관계로도 유명하다. '프렌치 커넥션'이라 불리우는 앙리, 피레, 윌토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피치 위의 아티스트' 베르캄프가 보여주는 공격진의 화려함은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 최강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다. 이외에 세계 최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꼽히는 비에이라, 잉글랜드의 국가대표 노장 골키퍼 시먼 등이 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41통신대대 일병 이현규



제공사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프리킥을 하는 데이빗 베컴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3개팀은 디비전 1로 강등, 상위 3개팀은 유럽 최강 클럽을 가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다.

최용수, 김도근, 김남일선수 등이 동부 런던지역을 연고로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입단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이나모토(풀햄), 중국에서는 순지하이(맨체스터 시티), 리티에(에버튼)등의 프리미어리거를 배출했다.

잉글랜드 리그의 특징

크로스 패스와 긴 패스를 자주 볼수

으나 작년 시즌부터 런던 최강 아스날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잉글랜드의 주장 베컴을 비롯, 스콜스, 페르디난드, 프랑스 국가대표 골키퍼 바르테즈, 웨일즈의 군계일학 킷스, 아일랜드의 엔진 로이 킨, 아르헨티나의 마법사 베론 등 초호화 멤버를 자랑한다.



제공사진

리버풀의 마이클 오웬이 슛을 하는 장면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0 장**

\* 저는 방을 다른 분과 함께 써요.

종종 학교근처에 보면 'looking for a bed spacer' 라는 광고를 봅니다. 다른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전기세, 물세 그리고 rent 비를 반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Topic : "저는 방을 다른 분과 함께 써요."

I share the room with a bed spacer.

주제연구) bed spacer 를 '침대를 함께 사용하는 연인'으로 보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아파트(영어로는 studio apartment)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동성(同性)인 경우가 많겠죠?

A: Do you live alone?

B: I used to, but since last month, I share the room with a bed spacer.

A: Don't you feel uncomfortable?

B: A little bit, but I save at least 150 dollars a month.

번역)

A: 혼자 사세요?

B: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부터 다른 분과 함께 생활하지요.

A: 불편하지 않으세요?

B: 약간은요 하지만 한달에 적어도 150 달러 정도는 절약이 되죠.

\* 교외에 사세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서울 교외에 apartment 를 많이 신축하더군요. 도심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겠죠.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Topic : "교외에 사세요?"

I live in a suburb.

주제연구) '교외'라는 단어를 분리해 보면 sub+ urb 입니다. 접두어 sub- 은 '~아래, ~보다 약간 밀의, 가까이' 이라는 뜻이고 어근 -urb- 은 라틴어로 '도시'라는 뜻을 갖죠. 그래서 suburb 은 '도시보다 약간 떨어진 곳' 또는 '교외'라고 해석됩니다.

A: Where do you live?

B: I live in a suburb of L.A.

A: Do you have quiet neighbors?

B: Yes, we do. And at night I can hear the sound of nature.

번역)

A: 어디에 사세요?

B: LA 근교에 삽니다.

A: 이웃들은 조용한가요? (다정다감한가요?)

B: 네. 그리고 밤엔 자연의 소리(벌레 소리 새소리)도 듣고 싶죠.

덧붙여)

'도시'라는 -urb- 가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 봅니다.

1) urban poverty : 도시의 빈곤화

2) urban gas supply : 도시가스 공급

3) urban ecology : 도시 생태학

4) urbane : 도시풍의, 세련된

\* 이사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봄철'에 이사를 많이 가죠? 하지만 미국인들은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이사를 갑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 이고 우리 처럼 '이사집'이 많지 않아서 이사 가기 편리하기 때문이죠.

Topic : "이사 가고 싶어요"

I want to move out.

사전을 보시면 move 의 뜻은 '움직이다' 이지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사가다'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mover 라면 '이사집 센터'라고 하고 moving van 이라면 '이사집 트럭'이라 할 수 있죠.

A: I want to move out.

B: What? You moved in just two months ago.

A: Yes, but I can't stand my new neighbors.

B: Are they noisy?

번역)

A: 이사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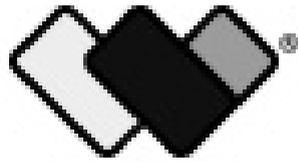
B: 뭐라고요? 이사한 지 두 달 밖에 안됐잖아요.

A: 그래요, 하지만 동네가 좋지 못해 못살겠어요.

B: 시끄러운가요?

\*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구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아파트를 구할 때 '방의 개수'를 기준으로 값을 정합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으로



Winglish.com

많이 거래되는 '방 두 개 짜리 아파트'를 구하는 연습을 합니다.

Topic : "방 두 개 짜리 아파트 구함"

I am looking for a two bedroom apartment.

'방 두 개 짜리 아파트'는 영어로 two bedroom apartment 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two bedrooms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 I'm looking for an apartment.

B: How many rooms do you want?

A: Two bedrooms will be fine.

B: Let me check into it.

번역)

A: 아파트를 구합니다.

B: 방 몇 개 짜리를 원하세요?

A: 두 개면 됩니다.

B: 제가 한번 찾아보죠.

덧붙여)

미국에서 말하는 apartment 는 우리 식으로 하면 약 3층 정도의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처럼 고층 아파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 우린 다음주에 이사해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사'를 해볼까요? 중요한 사실은 move 동사의 활용입니다. '움직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사하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Topic : "우린 다음 주에 이사해요"

We're moving next week.

주제연구: 우리 말에 보면 '이사가다' 와 '이사 오다' 가 엄연히 구분됩니다. 영어로도 '이사가다'는 '밖으로 나가다'는 의미의 'out' 을 써서 move out 이라 하고 '이사오다'는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in 과 함께 move in 이라 하죠.

A: We are moving next month.

B: Did you buy or rent?

A: We bought it.

B: You must have saved quite a bit of money to do that, huh?

번역)

A: 우리 다음주에 이사해요.

B: 집 사신거예요 아니면 임대 하신거예요?

A: 샀어요.

B: 돈 많이 저축하셨네요, 그렇죠?



MOVIE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감독: 손 레비

주연: 브리트니 머피

남성미 넘치는 톰은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교통방송 리포터이고, 귀여운 새라는 엄청난 부잣집에서 공주처럼 자란 예비 작가이다. 첫 만남에서 강렬하게 끌린 두 사람은 급속히 사랑에 빠져들고, 새라 부모님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혼여행 중 이들은 수많은 사고와 다툼을 겪게 된다. 초보부부의 사랑 굳히기 대장정!



TOP CHARTS

신화

너의 결혼식

2. 점점 / 브라운 아이즈
3. 편지 / 지오디
4. 오래오래 / 이소은
5. 보고 싶다 / 김범수
6. To my love / T
7. 붙잡고도 / 노을
8. 한 사람을 위해 / 안재모
9. Good Bye / 이수영
10. 행복했던 기억들은 / jtl
11. Girl / F-IV
12. 잠시만 안녕 / M.C. The Max
13. 나의 사랑 나의 신부 / UN

# 첫사랑의 그 싱그러움 한가인



카투사 신문 이만석

버스를 탄 한 남자. 먼저 타고 있던 친구가 그를 향해 손을 들지만 그 남자는 친구를 외면하고 창가에 앉은 그녀 옆자리에 앉는다. 서로를 힐끗 쳐다보는 그들. 남자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청순함에 반해버리고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동시에 그녀의 싱그러운 미소가 스크린을 가득 메운다. '박카스' CF의 한 장면이다. 한가인은 이렇게 TV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와 마치 외국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로 많은 이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켰다. 겨울이 지나가는 2월의 어느 날, 카투사 신문은 그녀와 일산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이름은 한가인이고요, 본명은 김현주입니다. 생년월일은 1982년 2월 6일이예요. 학교는 지금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부 1학년 휴학 중입니다.

### -데뷔하게 된 계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KBS 뉴스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때 잠깐 인터뷰를 한 이후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라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현재 소속된 기획사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

### -최근 근황

요즘은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나홀 정도는 일일 연속극 '노



카투사 신문 이만석

란 손수건'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코미디 타운'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 촬영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 -'노란 손수건'에서 맡은 역할

제가 맡은 역할은 악역이 아닌데 다들 제 역이 악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드라마에는 추상미 씨가 제 이복 언니로 나와요.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회사 비서였어요. 추상미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제 어머니와 재혼하시게 되

는 거예요. 그리고 이복 언니인 추상미 씨와 저는 갈등관계에 있게 되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순수하고 착한 역이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캐릭터고요.

### -CF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제일 기억에 남는 CF는 '차우린' CF예요. 이 CF는 중국에서 찍었어요. 해발 800m 되는 곳에서 기온은 40도를 웃돌았어요. 그리고 새벽 안개를 배경으로 찍어야 했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촬영했어요. 사흘에 걸쳐 찍었는데 음식도 안 맞아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힘들긴했지만 막상 촬영을 끝내고 CF를 보니 마음에 딱 들어서 뿌듯했지요.

### -CF와 드라마 촬영을 비교한다면?

사실 둘 다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우선 공통점은 둘 다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CF는 한 순간의 표정을 포착하는 것이잖아요. 저에겐 CF보다 드라마를 찍는 게 아직 훨씬 더 어려워요. CF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해보아서 이제 꽤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성격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예요. 하지만 일단 친해지면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욕심도 많고 사실 고집도 조금 센 편이예요.

### -별명

중고등학교 때는 '전기인간'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저랑 손을 잡는 사람들이 마다 전기가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름 때문에 별명이 생겼어요. '한가해'라는 별명이에요.

### -취미

취미라고 하기는 조금 우습지만요, 슬픈 음악을 즐겨 들어요. 제가 요즘에는 차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딱히 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책을 보기도 조금 그렇고요. 제가 슬픈 음악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슬픈 음악을 자주 들지요. 그리고 음악 듣기 외에는 독서도 좋아하고요, 십자수와 뜨개질도 즐겨해요. 액자, 쿠션, 목도리를 가끔 만들기도해요.

### -연예인임을 실감할 때

사실 아직까지는 밖으로 다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렇게 못 느꼈는데, 얼마 전에 밖에 나갈 때 저를 알아보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제가 밖에 다닐 때는 모자를 꾸욱 눌러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돼요.

### -존경하는 연기자

방금 이야기한 심은하 씨를 존경해



카투사 신문 장승모

요. 연기도 잘하시고 예쁘시고 스타일도 너무 좋으시고요. 제가 남자였다면 아마 제 이상형이었을 거예요. 자기관리도 잘하시고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의 계획

우선 연기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조금 자신감이 붙는다면 영화도 해보고 싶어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연기자 '한가인'이 어떤 연기자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 -이상형

저는 하나하나의 이목구비보다는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깔끔하고 지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딘가에 꼭 있을꺼예요.

### -카투사에게 한마디

사실 제 주위에는 카투사인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제 생각에는 카투사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 안들이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군 생활 열심히 해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얼른 제대하세요!

일병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



### 프로파일

이름: 한가인  
 생년월일: 1982년 2월 2일  
 신장: 168cm  
 몸무게: 47kg  
 학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부